

리강,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참석 시 강조

중일한 협력의 새 로정 열어 지역 번영과 안정에 더욱 큰 기여 해야

현지시간으로 5월 27일 오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서울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함께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에 참석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올해는 중일한 협력기제가 건립된 지 25 주년이 되는 해이다. 새로운 출발점에서 중일한 협력의 초심을 고수하고 개방 포용, 상호 존중, 상호 신뢰, 상호 혜택, 교류와 상호 참조를 견지하며 중일한 협력의 재출발, 가속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인 발전의 새 로정을 열어 지역의 번영과 안정에 더욱 큰 기여를 해야 한다.

리강은 중일한 협력 심화에 대해 다섯가지 건의를 제기했다. 첫째, 협

력의 전면적인 재개를 추진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협력의 보유량을 충분히 활성화시키고 증가량을 안정적으로 육성하여 량자 관계와 3 국 협력의 상호 촉진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경제무역의 상호 연결과 소통을 심화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류통을 수호하며 중일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회복하고 완수해야 한다. 셋째, 과학기술혁신 협력을 선도하고 협동 혁신과 최첨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은 중국에 '중일한 혁신협력중심'을 설립하여 3 국이 새로운 동력에너지가 가속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탬 것이다. 넷째, 인문교류의 뉴대를 긴밀히 하

고 중일한 문화교류의 해 개최를 계기로 3 국 국민이 '이웃 사이'에서 '마음이 통하는 사이'로 되게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힘써 촉진하고 저탄소 전환, 기후변화, 로령화와 류행병 대응 등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며 더욱 많은 '중일한 +X'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전개해야 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 조선반도 정세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각측은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여 정세를 완화시키고 하루빨리 대화를 재개하여 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이 앞으로 전진하도록 추진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 중일한은 각자의 발전 우

세를 잘 활용하여 아세안 등 지역 국가의 수요와 적극 연결하여 지역 협력의 새로운 엔진을 구축해야 한다. 아세안과 중일한 (10+3) 의 협력 추세를 손잡고 진작시켜야 한다. 중국은 한국측, 일본측과 함께 인류운명 공동체 구축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과 세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함께 수호할 용의가 있다.

한국과 일본 정상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한일중 협력이 4 년여 만에 재개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국은 이번 지도자회의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협력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문,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무역, 공중보건, 과학기술, 재해구조 등 6 대 분야에서의 협

력을 끊임없이 심화하며 한일중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하고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공동으로 촉진하며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손잡고 대응하여 한일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고 3 국 국민에게 더 나은 복지를 가져다주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

회의후 3 국 지도자는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회견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여 중일한 협력은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담당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국은 이번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과 함께 중일한 협력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다.

3 자는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공동선언>, <중일한 지식재산권 협력 10 년 비전 공동성명>, <미래 대류행병 예방, 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을 발표하고 제 8 차 지도자회의에서 채택한 <중일한 협력 미래 10 년 전망> 을 힘써 실행하기로 일치하게 동의했다. 또 중일한 3 국 협력의 기제화를 추진하고 아세안과 중일한 등 다자간 틀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여 세계 평화와 안정, 발전,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로 했다. 3 자는 2025 년—2026 년을 중일한 문

화교류의 해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오정룡이 사술한 활동에 참석했다.

/ 신화넷

리강, 한국 대통령 윤석열 회견



현지시간으로 5월 26일 오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서울에서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참석 기간에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견했다. / 신화넷

현지시간으로 5월 26일 오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서울에서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에 참석하는 기간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회견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수교 30 여년 동안 중한 량국 관계는 신속히 발전했으며 경제무역 협력 성과도 풍성하다. 이는 량국 인민에게 실제적인 복지를 가져다주었다. 중국과 한국은 상호 존중, 개방포용, 호혜상생을 견지해왔다. 이러한 귀중한 경험은 쌍방이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할 가치가 있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량국 우호 신뢰의 큰 방향을 견지하고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요한 관심사를 존중하며 서로 신뢰하는 이웃, 서로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동반자가 되어 중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안정적이고 실속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한 간 산업사슬, 공급사슬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있고 경제무역 협력의 기초가 튼튼하고 잠재력이 크다. 량측은 함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협력의 폭을 넓혀 발전 기회를 함께 더 많이 틀어쥐어야 한다. 경제무역 문제를 범정치화, 범안보화하는 것을 배격하여 량국의 글로벌 산업사슬, 공급사슬이 안정적이고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실무적이고 균형에 기초하여 중한 자유무역협정 제 2 단계 협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중한 (장춘) 국제협력시범구 건설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첨단제조, 신에너지, 인공지능, 생물약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 중국은 시장 진입 여건을 더욱 넓히고 외국인의 투자와 외국인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하며 시장화, 법

치화, 국제화의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다.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고 창업하는 것을 환영한다. 쌍방은 지방, 교육, 체육, 매체, 청소년 등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여 민간의 상호 리해와 친선을 지속적으로 증진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과 다자 분야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 발전을 함께 촉진할 용의가 있다.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한중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은 량국의 발전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 이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은 일관하고 드팀없이 한중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중국과 함께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고위급 래왕과 각 계층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며 인문교류를 증진하여 량국의 공동이익을 늘리고 한중일 협력을 심화하며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

량국은 적절한 시기에 외교부문의 고위급 전략대화와 부부장급 외교안보 2+2 대화를 진행하고 중한 1.5 트랙 (軌) 대화교류기제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한자유무역협정 제 2 단계 협상을 서둘러 추진하고 경제부장회의와 산업투자협력, 산업사슬, 공급사슬 협력, 수출통제대화 등 소통기제 역할을 잘 발휘하여 중한 인문교류촉진위원회와 청년 교류를 재개함으로써 량국간 인적 래왕에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오정룡이 회담에 참가했다. / 신화넷



현지시간으로 5월 26일 저녁, 국무원 총리 리강은 서울에서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참석 기간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회견했다. / 신화넷

현지시간으로 5월 26일 저녁, 국무원 총리 리강은 서울에서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에 참석하는 기간에 일본 기시다 후미오 수상과 회견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지난해 11 월, 습근평 주석은 기시다 수상과 샌프란시스코에서 회담을 갖고 중요한 합의를 이루고 량국의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을 재확인하여 량자 관계 발전에 중요한 정치적 발판을 제공했다. 일본측이 중국측과 함께 더 많은 영역에서 손잡고 나아가며 량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리행해 끊임없이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하고 협력을 심화하며 의견 격차를 타당하게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새시대 요구에 부합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력사, 대만 문제는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와 관련된 중대한 원칙 문제이자 기본적인 신의 (信义) 문제이다. 대만 문제는 중국 핵심 리익중의 핵심이자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일본측이 신의와 약속을 지켜 량국 관계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기를 기대한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일관계의 발전은 서로에게 중요한 기회이다. 중일 경제는 이미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你中有我, 我中有你) 구도를 형성해 량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가져다주었다. 중일간 경제의 상호 보완이라는 장점은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고 과학기술혁신, 디지털경제, 녹색발전, 제 3 자 시장 개척 등은 막대한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 량측은 상호성 취하게 하고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안정과 원활함, 글로벌 자유무역 체계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중국측은 일본측과 함께 다령역, 다채널, 다층적 우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인적 왕래를 한층 더 편리하게 하는 한편 청소년 교류를 적극 전개해 중일 우호 협력의 민의 기반을 끊임없이 다져나갈 용의가 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

제는 전인류의 건강, 글로벌 해양환경, 국제공공리익에 관련된다. 중국측은 주요 리해관계자로서 중국 정부와 국민은 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일본측이 장기적인 국제 측정 기제 구축 등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국내외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진심으로 대하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리행하기를 희망한다.

기시다 후미오는 일중 관계의 긍정적 발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량국 뿐만 아니라 세계에 리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측은 중국측과 함께 량국 지도자가 도달한 중요 합의를 리행하고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는 한편 녹색경제, 의료·건강, 제 3 자 시장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 교류를 편리화하며 지역 협력을 심화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문제에 공동 대응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일중 관계를 구축하고 일중 전략적 호혜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하며 량국 관계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끌어 나갈 용의가 있다. 일본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1972 년 <일중 공동성명> 을 통해 정한 립장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

량측은 각급간 대화와 소통을 강화하고 적절한 시기에 새로운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및 고위 인사 인문교류 협상기제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 한 전진이 있는 전제하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한 협상 및 대화를 추진해나가며 국제와 지역 사무에서 소통과 조율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량측은 국제 및 지역의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오정룡이 회견에 참가했다.

/ 신화넷

리강, 한국 삼성그룹 회장 이재용 회견

현지시간으로 5월 26일 오후, 국무원 총리 리강은 서울에서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 참석 기간에 한국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을 회견했다.

리강은 다음과 같이 표했다. 경제무역 협력은 중한 관계의 압축성이다. 중한 산업·공급 사슬은 서로 깊이 연결돼 이미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리익공동체를 형성했다. 삼성의 대 중국 협력은 중한 량국의 호혜공생과 협력발전의 생생한 축소판이다. 량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신흥 산업이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협력 전망도 갈수록 폭넓어질 것이다. 량국 기업이 첨단제조, 디지털경제, 인공지능, 녹색발전, 생물약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중한 경제무역 협력의 지속적인 질적 향상과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협력상생을 더 잘 실현하기를 바란다. 외자기업은 중국 발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력량이다. 중국이라는 큰 시장은 언제나 외자기업에 활짝

열려있다. 우리는 더 많은 외자기업이 보다 마음 놓고 중국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고 시장 접근성을 한층 확대하며 외자기업에 대한 국민 대우를 실행하고 기업의 우려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며 더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삼성 등 한국 기업이 대 중국 투자 및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며 중국의 새 발전에서 비롯되는 더 많은 새로운 기회를 함께 공유하는 것을 환영한다.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대 중국 투자 및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중국정부가 삼성의 중국내 생산과 경영을 적극 지원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삼성은 중국에서의 발전을 지속하고 중국 국민이 선호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힘쓰면서 한중 량국의 상호 리익과 협력에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정룡이 회견에 참가했다.

/ 신화넷



5월 24일, 관광객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참관하고 있다. 제 9 차 중일한 지도자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한국 서울에서 열렸다. / 신화넷